삼정初 '미래로 가는 희망찬 발걸음'
동남中·高 '꿈과 희망 향한 첫걸음'

포천시 초중고 5천654명 졸업식 갖고 새출발

포천시 신북면 삼정초등학교 2007년 졸업생 5명.

동남중·고등학교는 중학교 8천915명, 고등학교 7천78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

포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이 13일부터 16일까지 각 학교에서 개최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포천삼정초등학교는 5명의 학생이 2월14일 졸업식을 가져 포천시 관내에서 가장 적은 학생이 졸업했으며 가장 많은 학생이 졸업한 학교는 포천초등학교로 305명의 학생이 15일 졸업식을 가졌다.

또 중학교의 경우, 삼성중학교 31명, 포천중학교 427명, 관인고등학교 42명, 포천일고등학교 385명이 졸업했다.

올해 포천시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은 남학생 1천177명, 여학생 1천16명 등 2천193명이며 중학생은 남학생 1천57명, 여학생 1천10명 등 2천67명이 졸업했고 고등학생은 남학생 705명, 여학생 679명 등 1천394명이 졸업했다.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삼정초등학교는 5명의 학생이 졸업식을 가져 관내에서 가장 적은 학생이 졸업했다. 삼정초등학교는 이번 졸업식을 '미래로 가는 희망찬 발걸음'이라는 테마를 정하고 2월14일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장에는 졸업생 5명과 50여명의 재학생, 그리고 인근 시설보호기관인 '노아의 집' 재택학급 학생 12명과 학부모들이 졸업의 기쁨과 아쉬움을 깊이 나누었다.

졸업식이 시작되기 전, 대형 TV 화면에는 수학여행, 즐거웠던 운동회, 현장 체험학습 활동, 교실에서의 수업활동, 기량을 뽐냈던 작품전시회, 장애우와 함께 했던 시간들 등 30분 정도의 영상자료로 비춰져 초등학생으로의 마지막을 즐거웠던 추억을 상기해 보는 시간을 가진 졸업생들과 자녀들의 교육활동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려는 학부모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졸업식이 헤어짐의 자리가 아닌 하나의 축제로 이어졌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졸업생들은 한사람씩 호명될 때마다 단상에 나가 졸업장을 받았고, 또 졸업생 전원에게 주어진 1인당 20만원씩의 장학금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들의 작지만, 야무진 손에 쥐어졌다.

삼정초등학교의 58회 졸업식은 이처럼 다른 학교와 달랐다. 전체 졸업생을 대표한 1명에게만 졸업장이 수여되는 다른 학교의 졸업식 풍경에서 벗어나 졸업생 각 개인마다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 학생들이 졸업장을 쥐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다짐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졸업생 모두에게 각각 주어진 4~5장의 각종 상장은 뿌듯함 외에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스승의 은혜' 배경음악이 흐르고 졸업생들이 교장, 교감, 담임교사, 그리고 모든 교사에게 각자가 준비한 꽃사지를 달아드리는 순간에는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금의 현실에 잔잔한 경종을 울려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졸업식이 끝나고 강당 천정에 걸려 있는 자신의 장래의 꿈과 희망이 적힌 풍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의 발걸음엔 추억과 미래의 희망이 나란히 찍혀나고 있었다.

14일 오전11시 졸업식을 가진 동남중·고등학교는 관내 유일한 사립학교로 올해 44회 졸업생을 배출해 중학교 8천915명, 고등학교 7천78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

이날 졸업식은 국민의례, 담임교사 소개, 졸업장 및 상장·상품수여, 학교장 회고사, 이사장 축사, 졸업생 대표 인사, 학생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외상 표창장 수여식에서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는 포천신문사장상을 남수정, 이은정, 김경태 학생에게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박승찬 로타리클럽회장은 박현아, 박은영 학생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날 졸업생 중에서 서울시내 주요대학 입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혜리 연세대 상경계열 ▶정세훈 고려대 정경대학 ▶최수진 이화여대 교육학과 ▶이주성 중앙대 정경학부 ▶최나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한지혜 중앙대 아동복지 ▶신재인 중앙대 화학신소재공 ▶김정란 한양대 사학과 ▶한상미 경희대 사학과 ▶홍주아 경희대 관광학부 ▶남현우 경희대 태권도학과 ▶현세광 경희대 피아노학과 ▶서반석 경희대 골프학과 ▶김도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 ▶양자량 숙명여대 인문학부 ▶전윤철 한국체육대 체육학과 ▶최상묵 한국체육대 사회체육 ▶이경환 동국대 이공계열 ▶남궁봄 건국대 인문학부 ▶차호영 건국대 우주항공공학 ▶장성진 홍익대 기계시스템공 ▶최수정 국민대 경제학부 ▶이소희 국민대 IT경영학 ▶이선아 국민대 인문학부 ▶강은실 덕성여대 서양화학과 ▶박선희 단국대 영어과 ▶남수정 단국대 정경학부 ▶곽시은 세종대 호텔관광경영 ▶김명남 세종대 화학공학과 ▶윤여일 상명대 소프트웨어학 ▶이신명 한성대 영어영문학과 ▶이상철 한성대 무용학과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태현 삼정초등학교 교장이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대행 동남고등학교 교장이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두열 포천신문 전무이사가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승찬 포천로타리클럽 회장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특/별/기/고

정해년 설날 돼지 이야기

박동규
영북노인대학 학장

새로운 희망과 새 삶에 대한 의욕에 찬 정해년(丁亥年) 돼지 해 설날을 2월 18일에 맞게 되었다. 설은 우리나라 전통 민속일(民俗日)로 세수(歲首)·세시(歲時)·년두(年頭) 등으로 불렸고 매년 간지(干支)의 태세(太歲)로 연호(年號)를 사용했는데 금년이 정해년 돼지해이다.

돼지는 12 지지(地支) 가운데 마지막인 열 두 번 째 동물이다. 예로부터 돼지는 지신(地神)의 상징으로 여겼고, 돼지꿈을 꾸게 되면 길상(吉祥)으로 여겨 행운(幸運)과 재복(財福)을 누리게 된다고 믿었다.

돼지는 돼지과(豚科), 돼지속(豚屬)에 속하는 가축으로 원래는 야성(野性)이 강한 산돼지가 길들여져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家畜)으로 우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만인의 귀염을 받게 되었다.

돼지에 관한 한자는 숱하게 많은데 12 지지(地支)에서의 돼지는 해(亥), 돼지의 총칭으로 시(豕), 새끼 돼지는 저(猪), 큰 돼지는 희, 멧돼지는 단, 암퇘지는 루, 수퇘지는 가, 불알 깐 돼지는 분 등 특징에 맞게 구분해서 표기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猪)·시(豕)·돈(豚)으로 두루 표기하게 된다.

돼지는 체구(體軀)가 뚱뚱해 뭔가 풍만(豊滿)하고 후덕(厚德)해 보이고, 다른 짐승에 비해 풍성(豊盛)한 인상을 주기에 친근감(親近感)을 갖게 된다.

성격이 순하고 배가 부르면 조용하여 여러 사람의 귀여움을 받게 되지만 환경이 불결하고 굶기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시뢰·豕牢)를 벗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뛰어나가 앞을 향하여 돌진(突進)하기 때문에 저돌적(猪突的)이다.

급하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저돌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돌(猪突)의 '저(猪)'자는 돼지를 의미한다. 사람들 가운데 성난 돼지와 같이 앞으로만 돌진하는 용맹으로 급하게 앞만 보고 막 가는 사람을 지칭해서 저돌희용(猪突勇) 또는 희용(勇)이라고 했다.

돼지는 재산이나 복의 근원을 의미하기도 하며 다복(多福) 다산(多産)을 나타내는 길상(吉祥)의 동물로 상징된다. 성장이 빠르고 번식력이 강해서 다산의 동물로 오늘날 저출산(低出産) 우리사회에서 인간이 부러워하게 된다. .

12 지지(地支) 동물 가운 데 용과 더불어 인간이 선호하는 짐승으로 꿈속의 선망(羨望)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흔히들 돼지꿈을 꾸기를 바라고 꿈을 꾼 뒤에는 재복(財福)이 온다고 믿는데 과연 그런지 알다가도 잘 모를 일이기도 하다.

반면, 돼지는 세속(世俗)에서 미련(未練)·탐욕(貪慾)·나태(懶怠)·불결(不潔)·도식(徒食) 그리고 우둔(愚鈍)함을 대표하는 동물로 비하(卑下)되기도 했다.

돼지는 체질(體質)이 강건(強健)해서 어떤 기후나 풍토에서나 잘 적응하는 잡식동물(雜食動物)이기에 농가의 부산물(副産物)로 예로부터 웬만한 가정에서는 돼지를 우리에 가두어 한두 마리씩 기르곤 했다. 돼지를 길러 자식들의 중고생 학비로 충당하기도 했다.

돼지는 좁은 우리 공간에서 기르다 보니 배설물(排泄物)이 쌓여 역한 냄새가 나서 불결한 짐승으로 치부(恥部)하지만, 본래의 생활습성은 공간이 넓으면 잠자리와 배설(排泄)하는 자리를 구분하여 깨끗하게 사는 동물이다.

제주도에서는 반세기 전 육군훈련소 당시서부터 장병들의 인분을 먹여서 기른 똥 돼지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져오는가 하면, 근간에도 농가에서 똥돼지를 길러서 파는 식당을 관광객들이 찾게 되는데 육질(肉質)이 연해서 별미(別味)로 민속주(民俗酒)와 함께 주객들에게 각광(脚光)을 받고 있다.

옛날 농촌 가정에서는 길흉사(吉凶事)를 맞게 되면 기르던 돼지가 으레 희생(犧牲)되어 제상에 오르고 다른 음식에 비해 인기도 많았다. 어렵게 살던 시절이라 돼지를 잡는 날에는 동네 사람이 다 모이다시피 하여 동내 잔치를 벌여 큰 가마솥에 끓인 순대국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즐겨 먹었다. 곱창이나 순대의 별미(別味)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알지 못 하리라. 그 당시 장터에는 노파가 돼지국밥과 막걸리를 팔고 있었는데 사돈이나 친한 손님을 이 곳에서 대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경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음식문화도 점차 발달해서 오늘에는 삼겹살·돼지갈비·족발 등 대중기호식(嗜好食)으로 등장해서 즐겨 먹게 되었다. 예로부터 서민들의 식탁에는 돼지고기가 자주 오르게 되어 다른 진수(珍羞)보다 각광받고 있다.

고래(古來)로부터 돼지가 종묘(宗廟)·천지(天地)·산천(山川) 등 제의상(祭儀床)에 산양과 소와 함께 단골로 오르게 되는데 요즘에는 고사(告祀) 때마다 으레 제상에 설익은 돼지머리가 오르고 절하는 사람이 지폐를 입에 물리는 풍속도(風俗圖)를 흔히 보게 되는데 복을 받기를 소원(所願)해서다.

돼지에 대한 속언(俗言) 가운데에는 재미있고 의미를 부여하는 말들이 퍽 많다. 식탐(食貪)이 강해서 잘 먹는 사람을 '돼지처럼 먹는다.' 라고 비유했고,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가 곱지 않을 때 '돼지 목 따는 소리' 라 빗댔다. 사물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물도 소용없다고 해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라고 비꼬았고, 욕심이 많거나 뚱뚱한 어린이게는 '꿀돼지' 라고 귀엽게 불러주기도 했다. 미련스러운 돼지의 이미지 때문에 미련한 사람의 직감(直感)이 맞아 떨어질 때 '돼지가 깃을 물어들이면 비가 온다.' 고 비유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가돈(家豚) 또는 돈아(豚兒) 등 겸칭(謙稱)이 있지만 별로 쓰이지 않는 것 같다.

돼지는 원래 야성(野性)이 강한 산돼지를 순화(馴化)시켜 개량하여 번식시켰지만 지금도 산돼지가 산악지대의 농작물의 피해를 주어 농민의 원성(怨聲)의 대상이기도 하고, 근간에는 야산까지 먹이를 얻기 위해 찾아와 피해를 주고 있는가 하면 동절기에는 도시 중심가까지 내려와 시민을 위협하여 경찰과 포수에게 피살당하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되어 안타깝기만 하다.

근간에는 돼지를 기르는 양돈업이 성하여 수 백, 수 천 마리씩 기르는 대량 양돈 농가가 많이 있다. 하지만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나 화재로 인해서 집단 질식사(窒息死)하여 구덩이에 생매장(生埋葬)하는 장면이나 장마 때 홍수에 대량의 돼지가 둥둥 떠나려 가는 광경 등은 차마 볼 수 없어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어 연민(憐憫)의 정을 느껴 바라보기를 주저(躊躇)하게 된다.

생물계의 약육강식(弱肉強食)과 인간이 만물의 영장(靈長)으로 모든 동물을 제어(制御)하게 된다. 오래 전부터 성장을 촉진(促進)시키고 야성(野性)을 순화(馴化)시키기 위해 수퇘지를 거세(去勢)하거나, 다량으로 번식시키기 위해서 인공수정(人工受精)을 하는 것은 생물의 생식본능(生殖本能)을 박탈(剝奪)해서 생물에 대한 당초의 생존권(生存權)마저 상실하게 했다.

오늘날 돼지를 복제(複製)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장기이식(臟器移植)의 실험대상이 되어 적절한 공여(供與)동물로 인간에게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쌍춘년(雙春年)에 이어 금년은 '황금 돼지해' 라고 하여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재운(財運)이 있다고 믿는 길상(吉祥)의 한해를 맞게 되었다.

정해년의 정(丁)은 붉은 색을 의미하며 이는 황금을 비유적(比喩的)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돼지의 한자인 '돈(豚)'은 돈의 '전(錢)'과 독음(讀音)이 같아서 돼지가 돈이라고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길상(吉祥) 정해년에 우리 모두 돼지꿈을 꾸어서 다복(多福)하고 다산(多産)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